

# 기초학력 미달 느끼는데 예산 줄인 교육청

### 광주·전남 미달률 해마다 증가 자체 예산 오히려 수십억 축소 “학력 신장 의지 있다” 비난

광주·전남 교육청이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학습 부진아)들을 위한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초학력 미달’은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 성취 목표를 20% 미만으로 달성한 경우를 의미하며 진급해도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학력 수준을 뜻한다. 특히 광주·전남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세인 점을 감안하면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기초학력” 예산 줄여…의지 있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2013~2015년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 집행액 분석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관련 사업비가 크게 줄었다.

광주의 경우 감소세가 확연하다. 광주교육청은 지난 2013년만 해도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정부의 특별교부금과 자체예산을 포함해 58억4500만원을 투입

### ■ 광주·전남 기초학력 보장 사업 집행액

	2013			2014			2015		
	특교	자체	계	특교	자체	계	특교	자체	계
광주	277	5.568	5.845	439	4.390	4.829	425	1.206	1.631
전남	2.400	2.075	4.475	1.908	5.317	7.225	1.312	3.873	5.185

(단위:백만원)  
〈자료:오영훈 의원실〉

했지만 2014년에는 48억2900만원으로 10억원 가량을 줄였다. 급기야 지난해 16억3100만원으로 무려 31억원을 축소했다. 특히 55억6800만원(2013년)에 달했던 자체 예산을 지난해 12억600만원으로 대폭 축소,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남도 비슷해 지난 2014년 72억2500만원에 달했던 관련 예산을 지난해 51억8500만원으로 축소했다. 정부의 교부금 감축 비율(2014년→2015년 5억9600만원 감소)에 견줘 자체예산 감소폭(14억4400만원 감소)이 컸다.

◇기초학력 미달, 매년 느끼는데=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감소한 것도 아니다.

10일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2015 초·중등학교 공시정보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지난해 ‘기초학력 미달’ 등급인 중학생 비율은 6.1%로, 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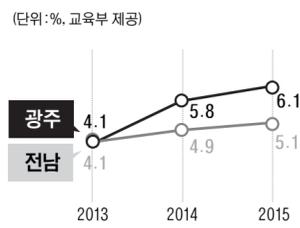
17개 시·도 중 전북(6.3%)을 제외하고 가장 높다.

학교 교육 과정 성취도가 20% 미만인 경우를 미달로 분류하며, 다음 학년으로 진학하기 어려울 정도로 학력이 낮은 학생들의 비율이 증가세도 두드러진다. ▲2013년 4.1% ▲2014년 5.8% ▲2015년 6.1% 등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 2013~2014년 증가폭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고등학교도 심각하다. ▲2013년 3.3% ▲2014년 4.3% ▲2015년 5.2% 등으로 2014~2015년 증가비율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 다음으로 높다.

이 때문에 광주교육청이 올 해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밝힌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인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두드림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대학생 보조강사제 등이 현장에서

### ■ 기초학력 미달 중학생 비율



제대로 먹혀들고 있는지 면밀한 분석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전남 지역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 등급 학생들도 ▲2013년 4.1% ▲2014년 4.9% ▲2015년 5.1%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 수치를 감안하면 기초학력 향상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도, 오히려 관련 예산을 줄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대로라면 전남교육청이 올 해 목표로 한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4% 이하로 감축’ 구상도 실현될지 미지수다.

다만, 전남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등급 비율은 지난해 6.2%로 전년(6.7%)에 견줘 감소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동강대 산학협력관에 마련된 ‘원스톱 창업상담창구’에서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대학생들. <동강대 제공>

## 동강대 알토란 창업 정보 입소문

### ‘원스톱 창업상담창구’ 운영

동강대가 대학생들의 성공적 창업을 위해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마련, 운영하는 등 적극적이다.

동강대 창업지원단은 교내 ‘원스톱 창업상담창구’를 설치, 대학생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초보 창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알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상담 창구를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 측은 한 달 새 상담 창구를 찾는 사례가 13건에 이르면서 직접 방문

외에도 전화나 e메일, SNS 등을 활용한 상담 방안도 마련 중이다.

대학 측은 창업지원체제를 비롯, 창업 적성검사, 창업절차 등 기본적인 상담 뿐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과 연계, 사업 계획서 작성, 법률·회계·세무 상담 등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 내 성공창업기업 대표 등과의 네트워킹 구축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동강대 창업지원단 박경우 실장은 “창업 초보자들에게 꿈을 이루는 희망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 전남대 로스쿨 경쟁률 4.88대 1

헌법재판소의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 등의 영향으로 전남대를 비롯,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평균 경쟁률이 상승했다.

10일 중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전국 25개 대학의 로스쿨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평균 경쟁률이 4.84대 1을 기록했다.

전남대의 경우 125명을 뽑는데 585명이 지원, 4.8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 경쟁률은 4.81대 1이었다.

서경대는 전체 40명 모집(가군 21명,

나군 19명)에 421명이 지원하여 10.53대 1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원광대 9.37대 1, 영남대 및 동아대 각각 7.16대 1 등의 순이었다. 한양대는 100명 모집에 535명이 지원해 5.35대 1, 성균관대는 120명 모집에 427명이 지원하여 3.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로학원하늘교육 측은 “사법 고시 폐지 예정에 따른 사시 수험생들의 유입, 대학 졸업(예정)자들의 로스쿨의 인기 상승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 학생부 정정 최다 항목은 창의적 체험활동

전국 고등학교가 올 해 가장 많이 정정한 학교생활기록부 항목은 창의적 체험활동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고교 학생부 정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의 학생부 정정 횟수는 9월 기준 28만4548건으로 나타났다. 정정 횟수는 ▲2013년 25만1495건 ▲2014년 27만8985건 ▲2015년 29만6170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다. 광주·전

남의 경우 ▲2013년 광주 9754건 전남 9976건 ▲2014년 광주 9877건 전남 10165건 ▲2015년 광주 8332건 전남 10660건 ▲2016년 9월 기준 광주 5268건 전남 5389건이었다.

전국 고교에서 올 해 기준으로 가장 많이 정정된 항목은 창의적 체험활동(7만9409건)이었다. 또 봉사활동(5만1174건), 교과학습발달상황(2만8757건), 세 부능력 및 특기사항(2만8515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2만6957건) 등의 순이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

### 교육단신

#### 전남대 13~15일 ‘라보엠’ 공연

전남대는 오는 13일부터 사흘간 교내 민주마루에서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La Boheme)’을 4차례 공연한다. ‘민주마루 개관기념 페스티벌’의 하나로, 전남대 오케스트라 80여명, 합창단 50여명, 어린이 합창단 20명 등 170여 명이 출연한다. 13일, 14일에는 오후 7시 30분, 15일에는 오후 3시, 7시 30분 두 차례 열린다.

#### 조선대, 의대 경쟁률 7.16대 1

조선대는 최근 2017학년도 의·치대 학사편입학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37명을 모집하는 의대의 경우 모두 265명이 지원, 7.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치과대학은 총 24명 모집에 210명이 지원, 8.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전남교육청, 13일 고입 설명회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13일 오전 9시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중학교 진학부장, 고교 입학담당자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2017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 및 나이스 기반 입·진학시스템 안내’ 설명회를 연다.



남부대 학생들이 지난달 운암시장 활성화를 위해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마련한 시식회. <남부대 제공>

## 전통시장 지킴이 나선 대학생들

### 남부대 운암시장 홍보영상 제작·호남대 월곡시장 토요축제

지역 대학들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남부대는 운암시장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고 호남대는 발길이 이어지는 월곡시장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남부대의 경우 지난해부터 2년 간 운암시장을 알리는 홍보영상 제작·편집을 비롯, 지역민 발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기 메뉴 개발 등에 적극적이다. 간호·식품영

양·호텔조리·한방제약개발·IT디자인·음악·향장미용학과 등 7개 학과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인접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를 활용, 프로야구 관람객을 사로잡을 ‘야구고객용 간식·도시락’을 구상중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들은 지난달 고객을 입맛에 맞는 상품 선정을 위해 경육고 떡갈비·헛개 냉

은 치킨 등 자체 개발한 메뉴에 대한 시식회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마련했다. 메뉴 개발에는 호텔조리·한방제약·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이 참여했다.

호남대도 ‘호감가는 시장, 남다른 시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년째 공산구 월곡시장 살리기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월곡시장 토요축제는 대학생·시장 상인, 교수 등이 참여하고 도자기 체험, 3D 프린팅 체험, 패션페인팅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성공적 행사로 자리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지을기자 dok2000@

# 중개 법인

# 한국토지경매

☎ 1522·3396

대표

경매

숙박시설

감정가 38억7천만, 최저가 27억1천만

오룡동 / 3동 7층 / 대지 363평 건물 1200평

가스충전소

감정가 12억7천만, 최저가 8억9천만

화순 / 대지 977평 건물 108평 / 자동차기 / 3기 6구

매매

오피스텔

매매가 40억

학동 / 8층 / 대지 133평 건물 577평

상가건물

매매가 14억5천만

월계동 / 3층 / 대지 198평 건물 450평

매매

수익형 상가 빌딩

동구 금남로 / 대지 172평 건물 249평 / 금남로 메인 도로점 / 3층

감정가 21억3천만, 최저가 9억6천만

매매

토지

화순 화순읍 / 대지 932평 / 2종일반주거지역, 개발촉진지구 / 광덕지구 서측 / 8m도로점

감정가 16억4천만, 최저가 16억4천만

매매

고급펜션 및 전원주택 부지

해남 화원면 / 임야 및 답 6825평 /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 / 해안도로점 / 해변 전망

감정가 10억4천만, 최저가 10억4천만

매매

고급레스토랑

영암 삼호읍 / 2동 1층 / 대지 3887평 건물 130평 / 삼포교차로 북측

감정가 9억 1천만, 최저가 5억1천만

매매

전통한옥식 전원주택

보성 / 대지 185평 건물 80평 / 도로점 / 보성강 전망

감정가 3억6천만, 최저가 2억

매매

상가

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윤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 식당 성업중

매매가 17억

매매

전통한식당 및 웨딩공연장

담양 고서면 / 대지 1570평 건물 571평 / 제1종일반주거지역

매매가 16억

매매

전원주택

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

매매가 13억

매매

숙박시설 부지

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

매매가 8억5천만

매매

임대 수익형 다세대 주택

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가구 / 공실없음

매매가 5억5천만

부동산 매도 / 매수 상담환영

토지 / 상가 / 공장 / 창고 / 임야 010-6772-1114 김주성